

임종간호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 of the End-of-Life Care in Korea

변진이*, 권신영**

경일대학교 간호학과*,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Jinyee Byun(jinyee@kiu.kr)*, Sinyoung Kwon(sykwon@gangdong.ac.kr)**

요약

본 연구는 2003년부터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임종간호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수집을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을 이용하였으며 총 115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임종간호 논문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7년에서 2019년에 가장 많은 논문이 출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연구는 주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간호사의 경우 주로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논문의 주요 주제로는 임종간호 태도, 수행, 임종간호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가 많았으며 연구 방법으로는 양적연구가 78.3%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논문의 IRB 승인 여부를 분석한 결과, IRB 승인을 받은 논문은 64.3%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임종간호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중심어 : | 임종간호 | 연구동향 | 간호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search trends of hospice that were published in KCI from July 2003 to 2022. Using Korea Citation Index, a total of 115 papers were selected for data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earch on terminal care were conducted mostly from 2017 to 2019. A total of 26 papers were published o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15 papers were mostly conducted with nurses and nursing students. It was found that those nurses were working in tertiary hospitals, long-term care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The research topics of the published papers are mainly related to end-of-life care attitude, end-of-life care performance, experiences of end-of-life care, and end-of-life care stress. Among them, 78.3% of the papers adopte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Concerning the IRB, 64.3% of the papers got an approval. It is expected that the present study can shed some lights on hospice care field by analyzing the trends of terminal care studies.

■ keyword : | End-of-Life Care | Research Trend | Nursing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노인인구의 증가와 사망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죽음은 삶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생애 말기 환자는 삶의 마지막

을 인간적이고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1], 친근한 환경 안에서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길 원한다[2]. 그러나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사망률은 전체 사망자 수의 75.6%이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3]. 이에 따라 간호사들은 환자들의 빈번한 임종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임종을 앞둔 환자가 좋은 죽음

접수일자 : 2022년 08월 29일

수정일자 : 2022년 10월 11일

심사완료일 : 2022년 10월 12일

교신저자 : 권신영, e-mail : sykwon@gangdong.ac.kr

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호하는 것이 간호사들에게 중요한 역할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4][5].

생존 기간이 수개월 이내인 말기 환자와 가족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6]와는 달리, 임종간호는 죽음이 임박한 상태의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간호로 임종하기 전 며칠 또는 몇 시간 이내에 이루어진다[7]. 임종이 임박한 환자는 의식 수준이 감소하고, 점차 연하근력이 심해지며 소변량이 줄어들거나, 무호흡, 청색증, Cheyne-Stokes 호흡, 무맥 등의 임상적 징후를 보인다[8]. 간호사는 임종기 환자 간호 시 이러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약물을 통한 통증 및 증상 조절, 깨끗한 환경관리 등의 기본적 간호 이외에도 공감과 적극적인 경청, 가족 교육, 전문가를 통한 심리적, 영적 지지 등을 제공해야 한다[9].

이처럼 임종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종간호를 위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10]. 특히 간호사는 다른 의료진보다 임종을 앞둔 환자와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11]. 따라서 환자가 슬픔을 받아들이도록 돕고[12], 환자와 보호자의 옹호자가 되어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환자와 가족중심의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13].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의 임종간호 연구는 주로 간호제공자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종간호 지식과 수행[14-16], 간호사의 임종간호 경험[17]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종간호 실습 경험 등에 대해 살펴보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도 연명의료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과 태도 등[11]을 살펴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처럼 임종간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임종간호에 대한 다학제적인 접근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까지 수행된 임종간호 연구의 동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동향 분석은 선행연구에 대한 출판시기와 연구 방법, 연구 주제 및 주요 연구 분야, 결과 등을 준거로 하여 연구를 분석하고 연구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18]. 또한 유사한 주제의 연구가 중복하여 수행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영역에 대한 주제를 탐색할 수 있게 한다[19][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임종간호 연구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추후 간호사들의 임종간호 실무 및 연구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학술지에 투고된 임종간호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함이다.

1) 임종간호 연구의 일반적 특성(출판 연도 및 출판 학술지)를 파악한다.

2) 임종간호 연구의 내용적 특성(연구대상자, 주요 주제, 연구방법, IRB 승인 유무)를 분석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임종간호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총 115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으로 국내 학술지에 등재된 간호학 분야 임종간호 논문을 수집하였다. 첫째, 한국한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www.kci.go.kr) 등재지에 게재된 임종간호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임종간호 관련 논문을 검색하기 위한 키워드로 ‘임종간호’, ‘임종돌봄’, ‘생애말기’를 포함하였다.

3. 문헌 검색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임종간호 논문을 검색하기 위해 1차적으로 한국한술지인용색인(KCI)에서 임종간호 관련 검색어인 ‘임종간호’, ‘임종돌봄’, ‘생애말기’를 입력하였다. 검색을 위해 주제분류의 대분류는 의약학, 소분류는 간호학으로 설정한 후 검색어를 입력한 결과, ‘임종간호’ 총 44편, ‘임종돌봄’ 총 48편, ‘생애말기’ 총 5편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중복 44편을 제외한 결과, 53편의 논문이 확인되었다. 이후 추가적인 논문 수집을 위해 ‘임종’

AND '간호'를 입력하였고 총 165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나 앞선 검색 결과와 중복되는 논문 49편을 제외한 116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2차적으로, 검색된 169편 논문에 대해 연구자 2인이 논문의 초록 및 본문을 검토하였으며 논문 제목이나 본문 등에 임종, 죽음, 사별 등의 단어가 제시되어 있지만 임종간호와 관련성이 낮거나 등재지가 아닌 논문 54편을 제외한 115편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한 논문 검색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수행되었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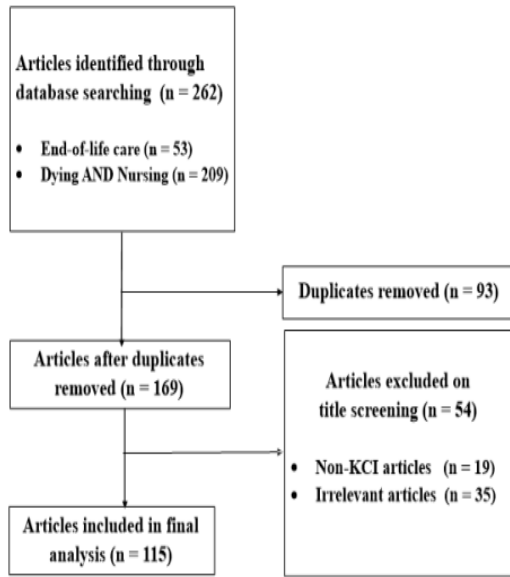


그림 1. 문헌 선정 과정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최종 선정된 115편의 임종간호 논문에 대한 분석을 연구의 일반적 특성(출판 연도, 출판 학술지)과 연구의 내용적 특성(연구대상자, 주요주제, 연구방법, IRB 승인 유무)으로 구분하였다. 자료의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Microsoft Excel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논문의 출판 연도 분석은 연구가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된 점을 고려하여 이후 3년 단위로 나누어 연도별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간호사나 간호대학생 위주로 분류하였으며, 간호사의 근무기관은 상급종합병원

과 종합병원,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로 나누어 파악하였고, 대학부속병원 및 3차 의료기관으로 기술된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주요주제는 연구자 2인이 함께 논문의 초록과 본문을 읽고 총 9개의 범주, 1) 임종간호 태도, 2) 임종간호 수행, 3) 임종간호 스트레스 4) 임종간호 경험, 5) 임종간호 교육, 6) 임종간호에 대한 인식, 7) 임종간호와 관련된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8) 임종간호에서의 윤리적 측면, 9) 임종치료 선호도로 구분하였다.

넷째, 연구 방법에 대한 분석을 위해 간호학 학회지의 동향을 분석한 한남경[21]의 분석 틀을 기반으로 수 영하여 양적연구, 질적연구, Q방법론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IRB 승인 여부에 대한 확인은 본문을 읽고 IRB 승인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 유, 그렇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무로 구분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의 일반적 특성

1.1. 연도별 출판논문 수

임종간호 논문 115편의 출판 연도를 확인한 결과, 2003년에 2편이 게재되었지만, 본격적인 발표는 2008년부터 이루어졌음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출판된 논문을 3년 단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8~2010년 사이에 4편(3.5%)이던 연구가 2011~2013년에 15편(13.3%), 2014~2016년에 23편(20.4%), 2017~2019년에 42편(37.1%)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던 논문 편수는 2020~2022년에 29편(25.7%)으로 다소 감소하였다[표 1].

표 1. 연도별 논문 수 (N=115)

Publication year	n(%)
2008~2010	4(3.5)
2011~2013	15(13.3)
2014~2016	23(20.4)
2017~2019	42(37.1)
2020~2022	29(25.7)

*2003년에 2편의 논문이 출판되었으며, 2004년~2007년에는 출판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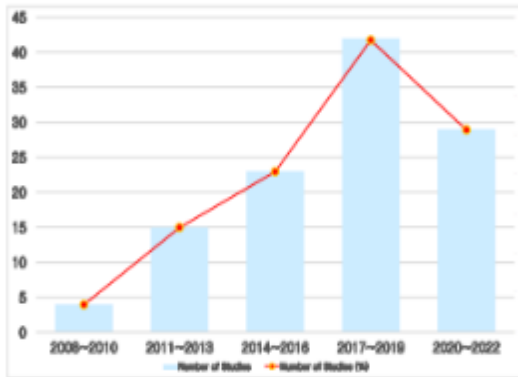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논문 수

1.2 주요 학술지

임종간호 논문이 출판된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가 25편(21.7%)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의료윤리학회지 9편(7.8%), 한국간호교육학회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융합정보논문지 각 5편(4.3%), 중환자간호학회지, 성인간호학회지, 한국융합학회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각 4편(3.5%), 노인간호학회지,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아동간호학회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 각 3편(2.6%)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지역사회간호학회지를 포함한 8종의 학술지에는 각 2편의 논문이 출판되었으며, 1편의 논문이 출판된 학술지는 한국보건간호학회지를 포함한 총 22종이 있었다. [표 2]는 3편 이상의 논문이 출판된 주요 학술지를 제시하였다.

표 2. 주요 학술지

Journal Title	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25(21.7)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9(7.8)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5(4.3)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5(4.3)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5(4.3)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4(3.5)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4(3.5)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4(3.5)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4(3.5)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3(2.6)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3(2.6)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3(2.6)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3(2.6)

2. 연구의 내용적 특성

2.1 연구대상자

논문에서 다루어진 연구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70편(60.9%),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27편(23.5%)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 외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편(1.7%), 간호대학생과 타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2편(1.7%),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행정직원 등 임종돌봄에 참여한 인력 대상 논문이 7편(6.1%)이었고 환자와 가족, 문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6편(5.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 70편에 제시된 간호사의 근무기관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22편(31.4%), 요양병원 20편(28.6%), 종합병원 19편(27.2%), 노인요양시설 2편(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2.2 주요 주제

논문의 주요 주제를 분석한 결과, 임종간호 태도 36편(31.3%), 임종간호 수행 22편(19.1%), 임종간호 스트레스 17편(14.8%), 임종간호 경험 16편(13.9%), 임종간호에 대한 인식 8편(7.0%), 임종간호 교육 7편(6.1%), 임종치료 선호도 5편(4.3%), 임종간호에서의 윤리적 측면 3편(2.6%), 임종간호와 관련된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1편(0.9%)의 순으로 나타나 임종간호 태도 및 수행, 임종간호 경험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표 3. 논문의 연구 대상자 및 연구방법론

(N=115)

variable	Categories	n (%)
Occupation	Nurse	70(60.9)
	Nursing student	27(23.5)
	Doctor and Nurse	2(1.7)
	Nursing students and General college student	2(1.7)
	Doctor, Nurse, and Nursing student	1(0.9)
	Nurse, Care worker, Nurse assistant, Social worker,etc	7(6.1)
	Other	6(5.2)
Work experience (n=70)	Tertiary hospital	22(31.4)
	General hospital	19(27.2)
	Long-term care hospital	20(28.6)
	Long-term care facility	2(1.7)
	Unknown	7(6.1)
Research type	Quantitative	90(78.3)
	Qualitative	21(18.3)
	Q methodology	4(3.4)
Research design (Quantitative)	Survey	79(87.8)
	Secondary data analysis	1(1.1)
	Experimental	6(6.7)
	concept analysis	1(1.1)
	others	3(3.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Focus group interview	3(14.3)
	Grounded theory	2(9.5)
	Content analysis	6(28.6)
	Phenomenological research	10(47.6)
Institutional review board approval	Yes	74(64.3)
	No	41(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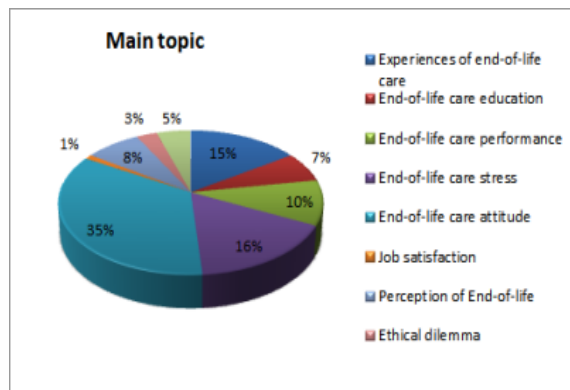


그림 3. 주요 주제

2.3 논문의 연구방법

논문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은 간호학 학회지의 동향을 분석한 한남경[21]의 분석틀을 기반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의 유형은 양적연구 90편(78.3%), 질적연구 21편(18.3%), Q방법론 4편(3.4%) 순으로 나타났으며, 양적연구 내의 연구설계로는

서술적 조사연구가 79편(87.8%), 실험연구 6편(6.7%), 이차자료분석과 개념분석이 각 1편(1.1%)으로 나타나 주로 조사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편에 해당되는 질적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10편(47.6%), 내용분석 6편(28.6%), 포커스 그룹 3편(14.3%), 근거이론 2편(9.5%) 순으로 나타나 주로 현상학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표 3].

2.4 논문의 IRB 승인 유무

본 연구에서 분석한 115편 논문의 IRB 승인 유무는 논문에 기술된 IRB 관련 기술의 존재 유무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IRB 승인을 받은 논문 74편(64.3%), 승인 받지 않은 논문 41편(35.7%)으로 확인되어 약 2배 가량의 논문이 IRB 승인을 받은 후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3].

IV. 논 의

본 연구는 2003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국내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임종간호 논문 115편을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으로는 출판 연도 및 학술지, 연구대상자, 주요 주제, 연구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먼저 연도별 게재 논문건수를 살펴본 결과, 임종간호 연구는 2003년을 기점으로 2편 정도 출판되었으며 2008년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되어 2017년에서 2019년에 42편(37.1%)이 진행되었다. 연구가 증가한 시점을 고려해 볼 때,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해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을 설명할 수 있다[6].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6]. 이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임종노인 증가로 질 높은 죽음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22] 계기가 되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 제정 전후로 임종간호 연구도 증가한 것으로 유추된다.

임종간호 연구가 주로 게재된 학술지는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가 25편(21.7%)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윤리학회지 9편(7.8%),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융합정보논문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각 5편(4.3%), 중환자간호학회지, 성인간호학회지, 한국융합학회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각 4편(3.5%)으로 확인되었다. 임종간호 연구는 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또는 아동 환자의 임종간호를 경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그 외에 만성질환자나 임종을 앞둔 노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도 수행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 대상이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115편 분석논문에서의 연구대상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과반수 이상인 70편(60.9%)이며,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27편(23.5%), 환자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6편(6.1%)으로 나타나 논문 대다수가 돌봄 제공자인 간호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임종 과정에서

의 돌봄이 환자의 보호자(가족)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23]. 이처럼 임종기 환자 간호에 보호자의 결정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볼 때[24][25], 임종기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 및 교육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27편(23.5%)이었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53.8%가 임상실습 중에 환자의 임종을 경험하는 점[26]을 비추어 볼 때, 이들 연구는 임상 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등을 파악하고 임종간호 태도를 정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는 삶과 죽음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죽음 불안을 감소시켜 임종간호 시 긍정적인 태도로 임종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27]. 이에 미래 간호 인력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호스피스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사들의 근무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이 대부분이었으며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28], 시설에 들어온 노인의 84.4%가 임종 시까지 시설에 있게 된다[29].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종기 돌봄 노인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임종간호 교육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분석된 논문들의 주요 주제를 살펴본 결과, 임종간호 태도 36편(31.3%), 임종간호 수행 22편(19.1%), 임종간호 스트레스 17편(14.8%), 임종간호 경험 16편(13.9%)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임종간호를 수행하거나 관찰한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 대상으로 임종간호 태도나 수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30][31]. 그 결과, 임종간호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삶의 의미[32], 죽음의 긍정적 의미, 생명 존중 의지, 임상경력, 임종간호 교육 경험[30] 등이 있는 반면에 임종간호 스트레스는 임종간호 수행에 장애[24]요인으로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3]. 따라서 임종기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생

명 존중에 대한 의지나 임상경력 및 임종간호 교육 경험에 따라 능숙하게 임종기 환자 간호를 수행하며 직무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간호사를 대상으로 죽음의 긍정적 의미와 생명 존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임종간호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여 임종 상황에서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임종간호 영역의 전문성 제고, 임종간호 스트레스를 증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석된 논문의 연구 방법을 살펴본 결과, 양적연구가 78.3%로 질적연구 18.3%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율로 수행되었다. 이처럼 양적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것은 분석 대상 논문 대다수가 서술적 조사연구인 것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종간호가 지닌 개별적 경험의 고유성을 고려할 때 질적연구가 임종간호의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 된다. 분석 대상 논문에서 질적연구는 주로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종간호의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외에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임종간호의 실무과정과 장애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간호사들은 임종기 환자 간호 시에 '표준화된 임종간호 실무의 부재'를 언급하며 표준화된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한 필요성[34]에 관해 설명하였다. 질적연구는 주로 현상이나 인간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참여자의 목소리를 통해 그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여[35], 간호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의 이해를 돕고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36]. 따라서 다양한 질적 및 혼합연구 방법을 통해 임종간호 관련 간호중재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37]를 마련하고 임종간호 연구를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논문의 윤리적 측면에 있어 IRB 승인을 받은 연구는 64.3%로 확인되어 과반수의 연구가 IRB를 받았다. 최근 간호학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연구의 윤리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커지므로 연구 윤리가 강화되고 있다[38]. 이는 간호학 분야의 인간 대상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IRB 교육에 대한 노출 및 심의 비율이 높은 점을 설명할 수 있다[39].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임종간호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임종간호 연구는 2008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증가하였으며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 인하여 임종간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임종간호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그동안 진행되었던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임종기 환자 및 보호자, 간호사를 위한 다양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임종기 환자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들로 하여금 간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실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외 논문을 제외한 국내 임종간호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약이 있다. 추후 연구 수행시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임종간호 연구를 포함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아직까지 임종간호 연구가 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종기 환자 및 가족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한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또한 임종간호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종간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연구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조사 및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제도적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참고 문헌

- [1] 곽수영, 이병숙, "말기암 환자의 호스피스 수용경험: 현상학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43권, 제6호, pp.781-790, 2013.
- [2] 박재영, *말기 환자의 재택 임종에 관한 탐색*,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3] 통계청, *2021 출생·사망통계(잠정)*, 2022.
- [4] 강지혜, 이윤미, 이현주, "중환자실 간호사의 좋은 죽음과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인식," 중환자간호학회지,

- 제12권, 제2호, pp.39-49, 2019.
- [5] 안미숙, 이금재,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인식과 임종간호태도,”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제17권, 제3호, pp.122-133, 2014.
- [6] 법제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2022.
- [7] P. King and S. Thomas, “Phenomenological study of ICU nurses’ experiences caring for dying patients,”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Vol.35, No.10, pp.1292-1308, 2013.
- [8] D. Hui, R. Santos, G. Chisholm, S. Bansal, T. Silva, K. Kilgore, C. Crovador, X. Yu, M. Swartz, P. Perez-Cruz, R. Leite, M. Nascimento, S. Reddy, F. Seriacco, S. Yennu, C. Paiva, R. Dev, S. Hall, J. Fajardo, and E. Bruera, “Clinical signs of impending death in cancer patient,” *The Oncologist*, Vol.19, No.6, pp.681-687, 2014.
- [9] World Health Organization, *Palliative care: Symptom management and end of life care. Integrated management of adolescent and adult illness*, 2013.
- [10] R. Ferguson, “Care coordination at end of life: the nurse’s role,” *Nursing*, Vol.48, No2, pp.11-13, 2018.
- [11] 박은희, 김남영,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 및 죽음불안이 임종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제30권, 제2호, pp.183-193, 2018.
- [12] M. Kurian, S. Daniel, A. James, C. James, L. Joseph, A. Malecha, E. Martin, and J. Mick, “Intensive care registered nurses’ role in bereavement support,”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Nursing*, Vol.16, No.1, pp.31-39, 2014.
- [13] A. Raymond, S. Lee, and M. Bloomer, “Understanding the bereavement care roles of nurses within acute care: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26, No.13-14, pp.1787-1800, 2017.
- [14] 박미라, 제남주, “요양병원 근무자의 호스피스 완화 돌봄 지식과 인식, 임종돌봄 태도,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임종돌봄 수행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제21권, 제4호, pp.124-136, 2018.
- [15] 김희영, 남금희, “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 스트레스와 임종간호수행 간의 관계에 미치는 공감역량과 극복력의 매개효과,”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제20권, 제4호, pp.253-263, 2017.
- [16] 조계화, 박애란, 이진주, 최수정, “임상간호사의 인문학적 소양, 호스피스 인식 및 영성이 임종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8권, 제2호, pp.103-116, 2015.
- [17] 김지영, 김묘성, “임종 환자를 간호하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재 경험,” *질적연구*, 제19권, 제2호, pp.112-130, 2018.
- [18] R. Heeks and S. Bailur, “Analyzing e-government research: Perspectives, philosophies,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24, No.2, pp.243-265, 2007.
- [19] A. Molassiotis, F. Gibson, D. Kelly, A. Richardson, R. Dabbour, A. Ahmad, and N. Kearney, “A systematic review of worldwide cancer nursing research: 1994 to 2003,” *Cancer Nursing*, Vol.29, No.6, pp.431-440, 2006.
- [20] 오복자, “국내 종양간호연구의 분석:2003-2008,” *대한종양간호학회지*, 제10권, 제1호, pp.80-87, 2010.
- [21] 한남경, 김상희, 김명신, 김준근, 김창환, 최승혜 “성인간호학회지(2010~2014)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간호이론 활용을 중심으로,” 제27권, 제5호, pp.527-536, 2015.
- [22] 김현심, 이순영, “좋은 죽음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신용합연구*, 제20권, 제6호, pp.105-115, 2022.
- [23] 옥정휘, 이명선 “심폐소생술 금지(Do-Not-Resuscitate)를 결정한 암환자 가족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5권, 제1호, pp.34-51, 2012.
- [24] 김현숙, 최은경, 김태희, 윤혜영, 김은지, 홍진주, 홍정아, 김진아, 김성하,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 어려움과 임종간호 교육요구 조사: 혼합연구방법,”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제22권, 제2호, pp.87-99, 2019.
- [25] 권소희, 김영주, “간호사의 가족간호 자신감과 가족간호 교육요구도: 임종기 환자 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35권, 제3호, pp.356-367, 2021.
- [26] 정선영, “간호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68-177, 2011.
- [27] 신은주,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생의 의미, 죽음불안 및 임종간호 태도에 미치는 영향,”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제22권, 제3호, pp.65-74, 2011.
- [28] 김정희, 문경숙, 신복순, 장은하, “일 지역 요양시설의 임종돌봄서비스,” *가정간호학회지*, 제22권, 제2호, pp.216-227, 2015,

- [29] 최인덕, 이은미, “실태조사를 통한 자익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효율적 연계방안,” 한국노년학, 제30권, 제3호, pp.855-869, 2010.
- [30] 박효진, 강은희, “간호사의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환자간호학회지, 제13권, 제1호, pp.76-86, 2020.
- [31] 조명주, “간호대학생의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제18권, 제4호, pp.306-313, 2015.
- [32] 홍희정, 최성희, “환자의 임종을 경험한 간호사의 자기 성찰과 삶의 의미가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인문사회21, 제12권, 제6호, pp.3137-3152, 2021.
- [33] 백유경, 최은정, “내과병동 간호사의 임종간호 스타레스, 직무만족도 및 임종간호수행,”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제18권, 제4호, pp.267-275, 2015.
- [34] 김익태, 송준아, “요양병원 노인 환자 임종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경험: 실무과정과 장애요인을 중심으로,” 노인간호학회지, 제23권, 제3호, pp.311-322, 2021.
- [35] 강성래, “질적연구에서의 윤리성에 관한 고찰,” 대한 질적연구학회, 제6권, 제1호, pp.67-76, 2021.
- [36] 서근원, “질적연구 수행의 의미,” 교육학연구, 제46권, 제3호, pp.133-161, 2008.
- [37] 신혜원, “간호학에서 질적연구 동향 분석(2011-2020년),” 질적연구, 제22권, 제2호, pp.61-73, 2021.
- [38] 전은영, 노준희, “가정간호학회지 게재 논문 분석: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가정간호분야를 중심으로,” 제27권, 제2호, pp.210-218, 2020.
- [39] 이고은, 박성호, 이효진, 박수진, 김상희,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호윤리 연구의 통합적 문헌 고찰(2011-2020),”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4권, 제1호, pp.59-80, 2021.

저 자 소 개

변 진 이(Jinyee Byun)

정회원



- 201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경일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 만성질환, 노인간호, 삶의 질

권 신 영(Sinyoung Kwon)

정회원



- 201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강동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 만성질환, 노인간호, 호스피스, 삶의 질